

성격

#초여름의 새벽

#무너지지 않는

#파랑과 파란

다정한, 온화한, 긍정적인, 나른한, 차분한, 부드러운, 끈기있는, 외유내강, 부끄러움을 잘 타는, 감정과 이성의 사이

A는 늘상 다정하고 부드러웠다. 여름의 초입, 선선한 새벽 공기를 한 입 베어물며 하루를 시작한다. A를 휘감고 있는 특유의 새파란 공기는 그에게서 여름을 떠올리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A는 선선한 여름을 닮았다. 새파란 입자가 잔류하는 푸른 그늘 아래에 서서 모두에게 다정한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 천성이 온화한 사람이었다. 쉽게 언성을 높이는 일이 없었고 입가에 걸린 미소를 잃는 법이 없었다. 마냥 낙관하지않되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버릇은 물론이요 끈기도 있었다. A는 무언가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욕심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집이 있었다. 한 번 시작한 일은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마음을 다잡고 다시 앞을 보며 나아가는 것은 A의 특기 중 하나였다. 그러면서도 결코 제 페이스를 잃지 않고 꾸준히 걸음을 옮기는 것을 보면 꽤 철두철미한 구석도 있다. A의 차분하고 약간 가라앉은 목소리는 전염성이 있어서, 타인에게 쉽게 옮겨갔다. 이를테면 가벼운 여름 감기와도 같이. A의 나른함은 호흡과 목소리를 통해 옮겨가는 일종의 질병과도 같아서, 쉽게 물들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전무하니 단순한 진정제 정도로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그는 타인을 진정시키고 편안하게 하는 데에 일가견이 있었다. 나른한 햇볕과도 같은 분위기를 푹푹 풍기면서 본인은 결코 쉽게 풀여지지 않는 것을 흑자는 장난스레 비난하기도... 그도 그렇게 A는 미묘하게 유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A를 둘러싼 파란 공기는 타인이 멋대로 침범할 수 없는 공간이었다. 분명 다정하게 웃고 있음에도 A는 타인에게 제 곁을 내어주지 않았고, 허물없이 가까워지지 않았다. 내성적인 성격도 원인이겠지만 애초에 A가 그런 사람이었다. 무른 경계심을 녹슬지 않을 정도로 관리하는 것을 잊지 않는. 딱 그 정도의.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A에게도 빈틈 정도는 존재했다. A는 유독 사람과 감정에 면역이 없었다. 표현이 솔직하다고 봐도 좋았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끄러움을 잘 탔고 쉽게 수줍어했다. 영화를 보고 벽차서 눈물을 터트리는 일도 한두 번이지, 덕분에 그는 영화관에 갈 때면 반드시 손수건을 지참하고는 했다. 공감도 잘해서 남의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예삿일이었다. 제 나름의 줄다리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이지만 그 속이 흰히 들여다보이니 원... 고요한 호수에 돌덩이 하나를 던져놓으면 무너뜨릴 수 있는 평온과도 같았다. 평소에는 그리도 차분하면서도 왜 울고 그러니, 응? 그런

말을 건네면 A는 멧쩍은 듯 뺨을 붉적이고는 했다. 눈물이 나오는 걸 어떡해... 푸른 눈동자를 초승달처럼 접어 웃으면서.

호불호

좋아하는 것

차, 독서, 영화 감상, 도서관... 등등.

- 차는 가리지 않고 좋아한다. 홍차, 녹차, 허브티 등등. 가장 좋아하는 것은 녹차.
- 책이라면 가리지 않고 읽는 편이지만 선호하는 장르는 로맨스, 혹은 스릴러.
- 영화 감상은 A의 오랜 취미 중 하나였다. 롤러코스터처럼 희노애락을 넘나드는 감정선을 따라 눈물을 펄펄 쏟고 즐겁게 웃다보면 기분이 후련해진다고.
- 꼭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조용한 장소를 선호하는 편이었다.

싫어하는 것

여름, 스킨십, 너무 단 것.

- 더위를 잘 타는 편이었다. 그러니 가장 더운 계절인 여름을 기피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 A는 타인의 온기에 썩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다. 싫어한다기보다는 낯선 것이다.
- 너무 단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것들. 미각이 예민한 편이라 단 맛을 강하게 느꼈다. 그 탓에 단 음식을 선호하지 않게 되었다.
- A는 싫은 것보다는 좋은 것에 더 집중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좋은 것도 많은데 굳이 싫은 걸 억지로 마주할 필요는 없잖아?

특징

생일

7월 8일

탄생화: 버드푸트

탄생석: 루비, 밀키 오판

탄생목: 전나무

A는 7월의 초입, 어스름이 몰려오는 새벽에 태어났다.

가족관계

보수적인 부모님과 귀여운 여동생 한 명이 있다. 부모님과의 사이는 아주 화목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무난하다는 것 같다. 필요에 의한 경우가 아닌 이상 대화하지 않는다. A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는 극히 드물다. 거의 없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반대로 올해로 13살이 된 여동생과는 사이가 좋아보인다. 단순히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 지나치게 싸고돌았다. 여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유독 표정이 밝아지고는 했다. 팔볼출끼를 숨기지 않는다... 과보호다 싶을 정도로 싸고 도는 것에는 나이차이가 많이 난다는 사실도 한 몫 하는 듯.

버릇

긴장할 때나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일정한 박자에 따라 손가락을 까딱거리는 버릇이 있다. 이 버릇이 책상을 톡톡 건드리거나, 의자 팔걸이를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고쳐야겠다고 다짐하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모양인데 잘 되지는 않는 것 같다.

목소리

차분하고 단정한 미성. 낮은 편에 속한다. 어투는 느긋하고 상냥하다. 말을 할 때 늘 서두르지 않고 느릿느릿, 조곤조곤 말하는 편이지만 답답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A의 목소리를 색으로 표현한다면 선명한 파란색일 것이다.

학교생활

성적은 항상 상위권을 유지한다. 매사에 성실하고 꾸준해서 시험기간에 각 잡고 공부한다기보다는 평소에도 페이스를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편이다. 시험을 칠 때는 컨디션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시험기간만 되면 컨디션 조절에 힘쓴다.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전교권에 무난히 들 정도. 점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교우관계는 무난한 편이지만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을 꼽아보라고 하면 어색하게 웃으면서 어물어물 넘겨버리기 십상이었다. 전체적으로 넓고 얇은 관계를 유지중이다. 단짝이라고 칭할 정도로 살갑게 지내는 친구는 없었다. 일정한 거리를 재고,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낸다. 어찌보면 공평한 셈이다. 아무에게도 제 옆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니까.

기타

1. 어릴 적부터 잔병치레가 잦은 편이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겨울만 되면 연례행사라도 되는 것처럼 열병을 앓았다.
2. 체온이 높은 편이다. 그래서 쉽게 열이 오르는 걸지도….
3. 병약함의 연장선인지 몸 쓰는 데에는 영 재능이 없었다. 덕분에 완벽한 성적표에서 체육만 늘 낙점이다.
4. 준비성이 좋은 편이다. 필요한 상황에 적절한 물건을 꺼내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원가를 흘렸을 때 물티슈를 내민다거나, 다쳤을 때 반창고를 내민다거나.
5. 영화감상이 취미여서 그런지 좋아하는 배우의 필모그래피를 줄줄 외우거나, 좋아하는 감독의 신작이 예고되면 들뜨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6. 입맛이 상당히 까다롭다. 매운 것을 잘 먹는 편이지만 단 것은 꺼리고, 너무 짠 것도 선호하지 않는다. 본인도 스스로가 까다롭다는 걸 알고 있어서 요리를 배웠는데 실력이 제법이다.
7. 도서관 제일 안쪽 창가 근처, 항상 비스듬하게 그늘이 져있는 카우치는 A의 전용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교내 도서관에 자주 들렀다. 눅눅한 책 냄새를 좋아하기도 했다.